

건륭제(乾隆帝)의 남순(南巡)과 양주(揚州) 희곡

차미경*

<目 次>

1. 들어가면서
2. 건륭제 남순과 양주
3. 건륭제 영접을 위한 양주의 희곡 활동
 - 1) 극단 양성과 공연
 - 2) 작품 창작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본 논문은 황제와 중국 공연예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청대 최전성기를 이룬 건륭제(乾隆帝)를 중심으로 황제의 남방 순행이 양주 희곡 발전에 미친 영향과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청대의 ‘강건성세(康乾盛世)’¹⁾로 불리는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이 통치했던 시기는 청 왕조 3백년을 통틀어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중국 전체 왕조 가운데서도 역사적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였다. 통치자는 민족갈등과 계급모순을 완화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 정치, 경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여 나감으로써 상당기간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였다.²⁾ 백성들도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1) 1680년대 초부터 1770년대 말까지를 청조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강희제 재위 후반 39년과 옹정제 재위 13년, 그리고 건륭제 재위 전반 39년을 합한 총 91년에 달하는 태평성대 시기였다. 이를 중국학자들은 ‘강건성세(康乾盛世)’라 한다. 임계순, 『淸史』(신서원, 2000), 274쪽 참조.

안정된 사회 환경 속에서 생산 활동에 힘쓰게 되어 명말 청초의 혼란한 전란의 상처를 딛고 다시 한 번 봉건사회의 번영기를 맞이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관리 제도가 정비되고 대규모 농업 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부흥으로 태평성세를 구가하였다.

청초의 제6대 황제인 건륭제³⁾는 이처럼 할아버지 강희와 아버지 옹정이 이룩한 안정과 번영을 이어 최전성기를 이룩하였다. 건륭제는 1736년부터 1795년까지 60년간 재위하고 1795년에 제위(帝位)를 양위했지만, 1799년에 사망할 때까지 태상황의 지위로서 막후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어떠한 통치자보다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그만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건륭제는 한 인과 만주인의 이상적 성군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다. 그는 열렬한 유학자로 바쁜 정무에도 모후에게 매일 문안을 드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4만 수 이상의 시를 지을 만큼 재능이 뛰어나고 박학호문 했다. 그는 아버지의 문화정책을 이어받아 30여종이 넘는 대규모의 편찬사업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⁴⁾, 스스로를 ‘십전노인(十戰老人, 열 번의 완벽한 승리를 이룩한 노인)’이라 칭한 별명으로 알 수 있듯이 군대를 일으켜 국내외로 대대적인 정복사업을 펼쳐 과거 중국의 어느 왕조도 이루지 못한 중국 역사상 최대의 판도를 실현했다. 물론 여러 번의 문자옥과 말년의 정치적 판단착오로 그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다양한 평가는 있지만 그는 중국역사상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황제였다.

2) 쉰래, 『중국사산책』(일빛, 2011), 486쪽 참조.

3) 건륭황제는 성은 愛新覺羅이고 이름은 弘曆이다. 康熙 50년인 1711에 태어나 嘉慶 4년인 1799에 봉어하여 향년 88세를 살았다. 그의 나이 25세(1736)에 제위에 등극하여 60여년을 통치했다. 건륭제의 삶은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711년부터 1735년까지의 기간으로, 그가 정규교육을 받고 보친왕으로서 황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한 유년 시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시기는 그가 즉위한 1735년부터 부찰 씨가 사망한 1748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아마도 건륭 연간에서 가장 낙관적인 때로 옹정의 유산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하던 시기이다. 세 번째는 1748년에서 1776년까지로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전개했던 시기이다. 네 번째 시기는 1777년 모후의 사망과 함께 왕위를 양위하면서 끝난다. 마크 C. 엘리엇, 『건륭제』(천지인, 2011), 354-366 참조.

4) 『明史』의 완성과 『大清一統志』, 『續三通』, 『古今圖書集成』 등을 편찬하였고, 무엇보다도 『四庫全書』의 편찬은 중국 최대규모의 편찬물이었다. 특히 『사고전서』의 편찬은 학문발전에 기여한 바도 커 고증학의 최성기를 이루기도 하였다.

건륭제는 그만의 방식으로 그 시대를 주름잡았다. 그의 기호(嗜好)는 그 시대의 의식을 결정지었고, 그의 행동은 그 시대의 동력(動力)이 되었다. 건륭제의 기호였던 희곡 애호는 당시 중국의 희곡 발전에 새로운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했고, 그의 여섯 차례에 걸친 남방 순행은 강남 지방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건륭 16년(1751), 22년(1757), 27년(1762), 30년(1765), 45년(1780), 49년(1784)에 행해진 여섯 차례의 남순은 육로와 대운하를 이용해서 수도 북경에서 항주까지 왕복했던 시찰 여행이다. 이 여행 중에 양자강과 남북으로 흐르는 대운하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인 양주는 건륭제가 꼭 왕복으로 들러야 하는 곳이었다. 이에 양주의 관부와 백성들은 황제의 남순을 맞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다양한 수로와 시설 등을 재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극진히 접대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준비했다. 희곡 공연 역시 이런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남달리 희곡 공연을 좋아했던 건륭제를 위해 양주 곳곳에는 희곡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희곡 공연이 전개되어 양주는 소주를 능가하는 남방 희곡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륭제의 남방 순행이 양주 희곡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리고 양주가 어떻게 남방 희곡의 중심지가 되는지와 화부 발전의 원동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황제의 기호와 희곡 발전이 갖는 중국연극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아울러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건륭제의 남순(南巡)과 양주(揚州)

조부 강희제와 같이 건륭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를 즐긴 역동적인 군주였으며 여행을 통치스타일의 특징으로 삼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여가를 보낼 때나 중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리고 심신을 달래기 위해 중국 북부는 물론이고 동서부, 그리고 남부까지 중국 전역의 수십 곳을 여행했다. 사천성, 청해성 인근을 돌아보는 서순(西巡)은 네 번, 산둥성, 호북성 인근을 도는 동순(東巡)은 다섯 번, 그리

고 강남 지역을 시찰하는 남순 여섯 번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여행을 하였다. 짧게는 36일에서 길게는 139일 동안 여행을 다녔다. 그가 여행한 기간을 거칠게 합산해 보면 자신의 전체 재위 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총 15년간을 이동하며 보냈다고 한다.⁵⁾ 이런 다양한 여행 속에서 가장 길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가장 유명했던 여행이 바로 남방 여행이다. 그는 1751년(건륭 16년), 1757년(건륭 22년), 1762년(건륭 27년), 1765년(건륭 30년), 1780년(건륭 45년), 1784년(건륭 49년)에 대대적인 강남 순행, 즉 남순(南巡)을 모두 여섯 번 단행하였다.

남순이란 황제가 직접 수백 명의 호종(扈從)인원들을 통솔하여 육로와 대운하를 이용해서 북경에서 항주까지 왕복했던 시찰 여행으로, 백성들에게 부와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었다. 이런 황제의 순행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가 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청 왕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⁶⁾ 북경에서 남쪽으로 약 16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양자강의 남쪽'인 강남지역은 부와 문화가 집중되어 발전한 곳으로 과거 중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도시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풍광이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건륭제는 할아버지 강희제처럼 이 강남지역을 순행하고자 했고 어느 정도 통치 기반이 공고해지자 여섯 차례에 걸쳐 남순을 행하였다. 1784년 75세가 된 건륭제는 지난 50년의 정치 역정을 회고하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린 지 오십년, 그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꼽아보라면, 하나는 서부 변경을 안정시킨 일이고, 다른 하나는 남방 순행이다"⁷⁾라고 했듯이 그의 정치, 경제, 문화 노선에 있어 강남 순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활동이었다. 그렇다면 건륭제가 왜 그토록 강남 순행을 중시했는지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강남은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다. 짐은 오랫동안 그곳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민정이든 군정이든, 강물의 통제이든 해안선의 방어이든, 또는 지역민들이 당하는 많은 송사나 시련이든, 어떤 것도 짐이 다루지 않은 일

5) 마크 C. 엘리엇, 『건륭제』, 162쪽.

6) 조영현, 「청조의 수도론과 황제의 순행」,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10), 141쪽.

7) “予臨御五十年，凡舉二大事，一曰西師，一曰南巡”。清『高宗實錄』권1201, 乾隆49年 3月己酉.

은 없었다. 그러나 길이 다소 멀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나 짐은 그곳을 여행하는 일을 연기해왔다. 그렇지만 짐은 남순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황조 시절(강희연간)의 『실록』을 여러 차례 읽었다. 조부께서 어떻게 황태후(강희의 모후)의 행렬과 동행했는지, 어떻게 노소를 불문한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 조부 일행을 환영했는지, 그들이 황실의 효덕(孝德)을 어떻게 칭송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이 일은 짐을 크게 감동시켰다(江南地廣人稠, 素所厪念, 其官方戎政, 河務海防, 與凡閭閻疾苦, 無非事者, 第程途稍遠, 十餘年來未遑舉行, 屢嘗敬讀聖祖實錄, 備載前後南巡, 恭侍皇太后鑾輿, 郡黎扶老携幼, 夾道歡迎, 交頌天家孝德, 心甚慕焉).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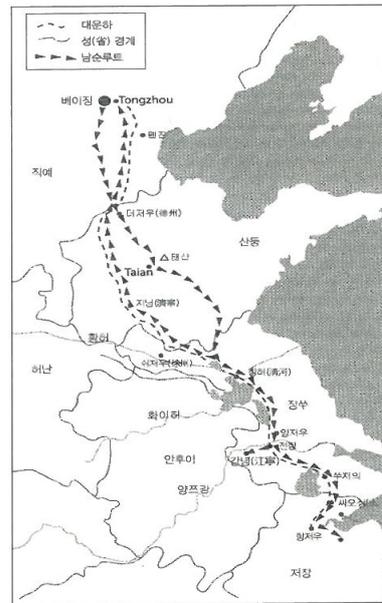
위의 내용을 통해 건륭제의 강남 순행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공공사업을 시찰하고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⁹⁾, 둘째는 강남 주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모후인 황태후에게 강남의 절경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그는 그의 나이 41세인 1751년부터 74세인 1784년까지 남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순은 주로 육로와 대운하를 이용하여 북경에서 항주까지 왕복하는 긴 여정이었고, 이 여정 중에 꼭 들르는 곳이 양주(揚州)였다.

양주는 양자강과 남북으로 흐르는 대운하가 만나는 교차지점에 놓여있는 교통의 요지로, 이런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바탕으로 명대 중기 이후부터 정부의 소금 판매 정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한 도시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명대의 소금판매는 명초의 개중제도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명 후기에 이르면 염법제도에 개혁이 일어나 강운법이 등장하고 특히 염세의 은납화가 추진되어 이를 양주에서 징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만력 연간의 염정개혁이다.¹⁰⁾ 이로 인해 양주는

8) 『清高宗實錄』 卷350.

9) 건륭제의 남순의 첫 번째 목적은 공공사업을 시찰하고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사업 시찰이란 바로 하공에 대한 정비였다. 당시 하공(河工)이란 황허 범람 및 이와 밀접하게 연동된 대운하의 치수체계의 문란함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과제였다. 1750년 남순을 부활시킨 건륭제는 1차부터 6차까지 예외 없이 하공에 대한 관심과 정비를 남순 출발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즉 하공은 강남지방까지 왕래하는 남순을 정당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조영현, 「청조의 수도론과 황제의 순행」,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145-147쪽 참조.

양회염장(兩淮鹽場)의 중심지로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염상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유례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천하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¹²⁾ 그러나 명 말에 청 왕조의 중국침입이 일어나고 양주에서는 ‘양주십일(揚州十日)’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나 양주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 청 왕조가 건국되고 전국이 정치적 안정을 찾자 경제 또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희, 옹정시기에 이르러 양주는 다시 상업적 활기를 찾기 시작해 염상들의 상업 활동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났다. 이로 염상들이 모여들면서 소금을 상업 활동의 본업으로 삼고 있는 양주의 명성은 다시 살아



(건륭제의 남순루트)¹¹⁾

났고 도시의 분위기도 전처럼 회복되기 시작했다. 특히, 건륭연간에 양주는 양회염구(兩淮鹽區)¹³⁾의 중심지로서 각지의 대상들이 모여들면서 거주자들이 수십

10) 개중법(開中法)은 변방의 군항(軍餉)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이다. 상인이 변방에다 직접 군항을 조달해 주면 그 대가로서 정부가 상인에게 염판매의 전매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개중법의 실시는 국가의 재정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운법(綱運法)은 정부가 작성한 강책(綱冊) 속에 염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 염상만이 대대로 염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는 거대한 자본을 소유한 거상들을 염상으로 지정하고 그들에게 정부의 적체된 염인을 해결하도록 책임지우려는 계획 하에 제도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를 강법(綱法)이라고 부르며 정부가 지정한 상인을 강상(綱商)이라고 불렀다. 조영현, 「명대 염운법의 변화와 양주 염상」(『동양사학연구』, 제70집)과 구범진, 「소금」(『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603-629쪽), 김종박, 「명대후기 염정의 개혁과 염상의 활동」(『명청사연구』 제22집) 참조.

11) 조영현, 「청조의 수도론과 황제의 순행」,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 편찬과 청사 연구』, 146쪽 재인용.

12) 만력(萬曆) 『通州志』 卷8 「遺事敘」: “揚州富甲於天下”, 王振忠, 『明清徽商與淮揚社會變遷』(北京: 三聯書店, 1996), 77쪽 재인용.

만이 넘는 대도시로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염상의 경제력이 최절정에 달하여 막대한 부를 자랑하는 도시로 명성을 떨쳤다. 당시 양주염상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윤으로 아무리 사용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부를 누렸다. 이로 인해 양주의 도시 경제는 사치와 소비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건륭제는 남순 중에 왕복으로 양주를 방문했고, 또 다른 곳보다 양주에서 오래 체류했다.¹⁴⁾ 이런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양주 관원과 염상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당시 건륭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는 길(御道)을 정비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는 등의 일로 재원을 낭비하거나 백성들은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 관리들은 황제의 시찰에 앞서 '황제가 공식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이때 큰 역할을 한 이들이 소금 생산과 유통을 통해 중국 전체 염상들 중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던 양회염상들이었다. 특히 양주 염상들은 황제의 남순을 대비하여 양주 도시를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막대

- 13) 청대의 소금유통 및 염세와 관련된 행정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전국을 11개의 염구로 나누었다. 장로(長蘆), 봉천(奉天), 하동(河東), 산둥(山東), 양회(兩淮), 양절(兩浙), 복건(福建), 양광(兩廣), 사천(四川), 운남(雲南), 섬감(陝甘)이었는데, 그 경계는 일반 행정구역과는 다른 원리에 의해 설정되었다. 주로 수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염구로 편성했다. 예컨대 회수(淮水) 하류의 남과 북에 위치한 수십 곳의 염장들은 대운하와 양자강 및 그 지류를 통해서 강소성(江蘇省), 안휘성(安徽省), 하남성(河南省), 강서성(江西省), 호북성(湖北省), 호남성(湖南省) 등에 위치한 260여개 주현과 연결되었다. 그 덕분에 회남(淮南)과 회북(淮北)의 염장들은 대단히 넓은 소비지역이 할당될 수 있었는데, 이를 합쳐서 양회(兩淮) 염구라고 부른다. 구범진, 「소금」,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이산, 2007), 603-629쪽 참조.
- 14) 아래의 도표를 통해 건륭제가 얼마나 양주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楊飛, 「乾隆歷次南巡駐蹕揚州表」(『乾嘉時期揚州劇壇研究』, 華東師範大學박사논문, 2006), 74쪽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차수	서력	연호	황제 연령	기간(음력)	양주 체류기간
1차	1751	건륭16년	41	1월13일~5월4일	139(11)
2차	1757	건륭22년	47	1월11일~4월26일	105(12)
3차	1762	건륭27년	52	1월12일~5월4일	113(17)
4차	1765	건륭30년	55	1월16일~4월21일	124(19)
5차	1780	건륭45년	70	1월12일~5월9일	117(17)
6차	1784	건륭49년	74	1월21일~4월23일	121(16)

한 돈은 부담했다.¹⁵⁾ 그들은 관부를 도와 천녕사(天寧寺)와 고민사(高旻寺), 평산당(平山堂) 등의 행궁을 짓고 완상(玩賞)할 장식품을 구비하며 크고 멋진 돌로 장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道)·부(府) 이하의 지방에서는 수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교량과 성곽을 보수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기치를 교체하였다.¹⁶⁾ 이런 공적인 일 외에도 염상들은 개인적으로 황제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막대한 거금을 투자하여 화려한 원림과 정원들을 건설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휘주 총상 왕석공(汪石公)의 부인이 건립한 서서호(瘦西湖)를 들 수 있다. ‘가녀린 서호’라는 뜻을 가진 서서호는 왕석공의 부인이 건륭제의 남순을 앞두고 항주 서호(西湖)의 풍경을 모방해 만든 호수와 원림이다. 이 서서호의 명물이 된 법해사(法海寺)의 백탑(白塔) 역시 남순으로 내려온 건륭제의 관람을 위해 염상들이 급조한 탑이다. 북경의 황궁에서 늘 보았던 백탑이 없다는 건륭제의 말을 듣고 강춘을 비롯한 염상들이 하루 밤 만에 소금으로 급히 이 탑을 만들었다고 한다. 다음 날 이를 본 건륭제는 이런 그들의 정성에 감복했다고 한다. 또, 이런 일환으로 희곡 관람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건륭제를 위해 극단을 활발하게 조직하여 다양한 연극을 황제에게 선보였다.

이처럼 양주 염상들은 관부를 도와 공적 사적으로 황제의 영접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황제는 이런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상을 내렸다. 아래의 상유문(上諭文)을 통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짐의 이번 남순에는 양회의 여러 상인들이 할당된 업무를 받들어 수행했는데, 이는 모두 국가의 급한 공무에 힘쓴 것이니 마땅히 성대한 특은을

15) 『金壺浪墨』 권1, 南巡盛典, “經費不足, 取給於鹽商”, 김종박, 「명청시기 양주도시의 발달과 염상문화의 형성」(『사충』 67), 264 재인용.

16) 먼저 기대하기를, 총독·순무·하도총독·조운총독 등의 대신은 산둥에서 (어가를) 영접하고, 포정사와 염운사 등 재부(財賦)와 관련된 관리들은 성대하게 궁을 구미고 완상(玩賞)할 장식품을 구비하며 크고 멋진 돌을 운반해 놓고 갖가지 색과 기이한 모양으로 장식을 했다. 경비가 부족하면 염상에게 취하여 제공했다. 도(道)·부(府) 이하의 지방에서는 수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교량과 성곽을 보수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기치를 교체하도록 했다. 또한 현승(縣丞)과 주부(主簿) 등의 보좌관들에게 도적을 포승하고 곤궁한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태평(太平)이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黃鈞宰, 『金壺浪墨』 권1, 「南巡盛典」 1b-2a쪽 참조.

베풀어 장여의 뜻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에 이미 봉원신경(奉宸苑卿)의 직함을 받은 황리섬(黃履暹)·홍징치(洪徵治)·강춘(江春)·오희조(吳禧祖)에게는 각각 가일급(加一級)을 허락하고, 이미 안찰사(按察使)의 직함을 받은 서사업(徐士業)·왕립덕(汪立德)·왕옥(王勛)에게는 모두 봉신원경의 직함을 추가해 주고, 이지훈(李志勛)·왕병덕(汪秉德)·필본서(畢本恕)·왕도(汪燾)에게는 안찰사의 직함을 허락하며, 정징계(程徵界)에게는 6품의 직함을 지급하고, 정양종(程揚宗)·정적(程積)·오산옥(吳山玉)·왕장형(汪長馨)에게는 각각 일급씩 올려주기를 허락한다(朕此次南巡, 所有兩淮衆商承辦差務, 此能皆踴躍急公, 宜沛特恩以亦獎勵. 其已加奉宸苑卿之黃履暹、洪徵治、江春、吳禧祖各加一級, 已加按察使銜之徐士業、汪立德、王勛俱加奉宸苑卿銜, 李志勛、汪秉德、畢本恕、汪燾着加按察使銜, 程徵界着賞給六品職銜, 程揚宗、程積、吳山玉、汪長馨俱着加一級. 欽此).¹⁷⁾

위 상유문은 건륭제가 3차 남순에서 남하 도중 양주의 천녕사에 머물면서 하달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양주 염상들이 건륭제의 남순에 필요한 각종 공무와 연회 준비에 앞장섰으며, 건륭제 역시 차등에 따른 의서를 베풀으로써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는 허함(虛銜)에 가까운 직함을 상인들에게 하사하여 격려하니 양주 염상들은 남순 기간 황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재정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양주는 황제의 남순을 맞이하기 위해 도로 및 수로 등 제반시설을 재정비했고 희곡 등의 예술문화가 크게 발전하여 당시의 강남문화를 주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더욱 거듭났던 것이다.

3. 건륭제 영접을 위한 양주의 희곡 활동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륭제는 정치적 상징과 기능을 포괄하는 남순을 여섯 차례 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주는 건륭제가 왕복으로 지나는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양주는 건륭제의 남순을 대비하여 관부는 물론이고 양주의 경

17) 單渠, 『兩淮鹽法志』, 嘉慶十一年刻本. 鄭志良, 「論乾隆時期揚州鹽商與崑曲的發展」, 『北京大學學報』(제40권, 제6기), 100쪽 재인용.

제권을 거머쥔 염상들은 남순에 필요한 각종 공무와 연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황제를 접대하는 성대하고 지극히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희곡 공연은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누구보다도 희곡을 애호하며 희곡에 조예가 깊었던 건륭제¹⁸⁾를 위해 관부와 양주 염상들은 막대한 거금을 투자하여 극단을 조직하고 유명배우들을 초빙하는 등 다양한 공연을 전개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양주에서 건륭제를 위해 어떤 희곡 활동들이 있었는지를 『남순성전(南巡盛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로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됐던 희곡 활동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건륭제의 남순 기간 양주 희곡 활동에 대한 내용 일람표〉¹⁹⁾

남순 차수	연도	희곡 활동
1	1751년 (건륭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악(厲鶚)은 지방관에게 초빙을 받아 승응신곡(承應新曲)인 『백령효서(百靈效瑞)』를 창작했다. * 2월 건륭제가 처음 양주에 도착했을 때 지방관은 등을 밝히고 극을 공연했고, 수상에서는 희선(戲船)으로 극을 공연하며 황제를 영접했다. * 2월 14일에서 15일 건륭제는 고민사(高旻寺) 행궁(行宮)에 머물렀는데, 양회 염상들은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준비했다. * 염상들은 이때부터 황제 영접을 위해 가반을 조직, 서상지(徐尚志)의 노서반이 효시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가반이 조직, 이를 ‘팔대내반(八大內班)’이라 부른다.
2	1757년 (건륭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9일에서 12일 건륭제는 양주에 머물렀고, 지방관들은 대희로 황제를 영접했고, 황제가 움직이는 곳에는 모두 회대를 건축하여 극을 공연하였다. * 양회염무에서 규모가 방대하고 극단의 배역이 갖추어진 유양광덕태평반(維揚廣德太平班)을 불러 공연했다.
3	1762년 (건륭27년)	2월13일에서 15일 건륭제는 천녕사 행궁에 머물렀으며 다양한 “今年勝昔年”으로 영접했다.
4	1765년	* 양주 염상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초빙하여 『뇌봉담』 전기를 개편했으나 시

18) 건륭제는 희곡매니아였다. 그의 희곡 애호가 궁중의 희곡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신지영의 「乾隆帝가 청대 내정연희 발전에 미친 영향」(『중국어문학』, 제50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19) 趙莎莎, 「乾隆南巡戲曲活動編年」(『戲曲史視野中的乾隆皇帝下江南』(廈門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70-71쪽))을 참조하여 다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건륭30년)	간이 총망하여 예인들이 음악에 익숙지 않을 것 같아 원곡을 사용했으나 예인들이 그것을 모호하게 노래했다. * 2월15일에서 19일까지 건륭제는 양주 행공에서 지냈다. 회남과 회북의 염무 총상 30명은 고교에서 영은정에 이르는 신하 양안을 나누어 붕(棚)을 세우고 정을 만들어 음악을 울리고 극을 공연했다.
5	1780년 (건륭45년)	양주염정은 심기봉(沈起鳳)을 초빙하여 황제를 영접하는 극을 창작하게 했다.
6	1784년 (건륭49년)	*양주 염무는 심기봉을 다시 초빙하여 황제의 영접하는 작품을 창작하게 했다. *건륭은 2월26일 양주에 머물렀는데 양회염무는 김덕휘로 하여금 임시극단을 조직하여 황제에게 연극을 올렸다.

위의 내용을 통해 관부와 양주 염상들은 막대한 거금을 투자하여 극단을 조직하고 유명한 배우들을 초빙하여 공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한 특별한 내용의 공연을 위해 유명한 작가를 초빙하여 작품을 창작하였으니, 이로 인해 양주의 희곡예술은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극단 양성과 공연

황제를 영접하는 공연은 당시의 중요한 정치임무였기 때문에 매년 건륭제를 영접하는 희곡 공연은 양회염무(兩淮鹽務)²⁰⁾에서 주관하였고, 양회염무에 소속되어 있는 양주 염상들이 이를 맡아 준비했다. 건륭제 어가가 양주 경내에 도착하면 성동북 오리 고교(高橋)에서 영은교에 이르는 양쪽 언덕에 경치를 감상할 자리(檻子)인 임시무대를 설치하여 회남과 회북의 30개 총상에서 구역을 분담하여 향정을 설치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연극을 공연하며 황제의 행차를 맞이했다.²¹⁾ 이런

20) 양회염무는 양회지역의 소금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소금의 유통 및 세금 등에 대한 국가정책을 행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양회염무에서는 소금 허가권을 많이 가진 상인들을 골라 총상으로 삼고, 총상에게 산상(散商)이라 불린 중소 상인들에 대한 관리를 맡겼다. 18세기의 경우 양회의 총상은 30명 정도였다. 이들 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을 수상(首商)이라 부른다. 따라서 염구에 실제적인 운영은 사실상 총상들에게 청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황제의 남순을 맞이하는 일에 총상이 앞장서서 기민하게 움직였던 것이다. 구병진, 『소금』,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이산, 2007), 603-629쪽 참조.
21) 구체적인 상황은 『양주회방록』(중화서국, 2004)20쪽에 잘 묘사되어 있다. 『揚州畫舫錄』은

임시로 만든 희대 외에도 전문적으로 만든 고정희대에서는 대회를 공연하였는데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양주 천녕사에서 평산당에 이르는 여정은 어 선을 이용하는데 수로 옆에는 유명한 원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화려한 천막을 치고 오색등을 밝히며 원림의 문 앞 희대에서 공연을 하였다. 이처럼 건륭제를 위한 화려하고 극진한 공연이 전개되었다. 이런 희곡공연은 주로 양회염상에서 조직한 팔대내반, 유양광덕태평반(維揚廣德太平班), 집수반(集秀班) 의해 공연되었다.

(1) 8대내반

앞의 일람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팔대내반은 황제의 영접을 위해 염상인 서상지(徐尙志)의 의해 처음 조직되었고 후에 지속적으로 조직되어 '팔대내반(八大內班)'으로 구성되었다. 이 팔대내반에 대한 기록은 『양주화방록』에서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양회염무(兩淮鹽務)는 관례대로 화(花)와 아(雅) 두 부(部)를 육성하여 대희(大戲)를 준비했다. 아부(雅部)는 '곤산강(崑山腔)'이고, 화부(花部)는 경강(京腔), 진강(秦腔), 익양강(弋陽腔), 방자강(梆子腔), 나라강(羅羅腔), 이황강(二簧腔)인데, 이 모두를 '난탄(亂彈)'이라 부른다. 곤산강은 상인 서상지(徐尙志)가 소주(蘇州)의 유명한 배우들을 초빙하여 노서반(老徐班)이라는 극단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 이어 황원덕(黃元德), 장대안(張大安), 왕계원(汪啓元), 정겸덕(程謙德) 등도 각기 극단을 만들었다.

청나라 李斗(1749-1817)의 저작으로, 18세기 중국 강남 문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揚州의 다양한 도시문화를 기록하고 있다. 건륭 29년(1764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건륭 60년(1795년)에 출판된 『揚州畫舫錄』은 총 30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완성된 이두 일생의 대작으로, 자서에서도 밝혔듯이 경서에 파묻히기보다는 명승을 유람하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여 30년 동안 양주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총 18권 24만자에 이르며 양주를 12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그와 관계되는 사원, 명승, 풍속, 오락, 인물 등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당시의 양주 염상들의 화려한 의식주와 축첩, 소송 등 갖가지 생활양식과 원림, 장서, 금석문 및 시회와 같은 문화 활동, 각종 잡극과 원본의 배우 및 극단 작품 현황과 양주를 무대로 활동한 학자들의 업적에 대해서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어 18세기 강남을 대표하는 양주의 다양한 모습을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소중한 자료이다.

홍충실(洪充實)은 대홍반(大洪班)을, 강광달(江廣達)은 덕음반(德音班)을 만든 후 다시 화부의 배우들을 모아 춘대반(春臺班)을 만들었다. 이로부터 덕음반은 내강반(內江班)이 춘대반은 외강반(外江班)이 되었다. 지금 내강반은 홍잠원(洪箴遠)에게 외강반은 나영태(羅榮泰)에게 귀속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내반(內班)'이라 부르고 대회공연을 준비했다(兩淮鹽務, 例蓄花、雅兩部以備大戲, 雅部即崑山腔; 花部爲京腔、秦腔、弋陽腔、梆子腔、羅羅腔、二簧腔, 統謂之亂彈。崑腔, 始於商人徐尙志徵蘇州名優爲老徐班, 而黃元德、張大安、汪啓元、程謙德各有班。洪充實爲大洪班, 江廣達爲德音班, 復徵花部爲春臺班。自是德音班爲內江班, 春臺班爲外江班。今內江班歸洪箴遠, 外江班隸於羅榮泰, 此謂之內班, 所以備演大戲也).²²⁾

위의 내용을 통해 양회업무는 황제의 영접을 위해 관례에 따라 대회(大戲) 공연을 준비했다. 이를 위해 양주업무에 소속되어 있는 양주 염상들은 각 각의 극단을 만들었고, 이렇게 조직된 극단을 '내반'이라 불렀다.²³⁾ 대회란 '신선과 부처, 빼어난 남녀에 대한 이야기, 태평성대의 풍경을 묘사한 연극'²⁴⁾으로 결국 황제인 건륭제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조직된 내반은 노서반이고 이후 다른 염상들도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각기 내반을 조직했으며 가장 후에 생긴 강광달의 춘대반을 제외하면 모두가 곤극극단으로 당시 곤곡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광달은 당시 염상 중에서도 수상(首商)으로 건륭제의 첫 번째 남순 부터 마지막인 여섯 번째 남순 까지 책임진 대표적인 상인이다. 이로 그는 황제를 위한 희곡 공연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곤극극단인 덕음반과 화부극단인 춘대반을 만들었던 것이다.²⁵⁾ 만약 건륭제가 화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22) 『양주화방록』, 107쪽.

23)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극단 이름	극단 주인	비고
노서반	서상지	곤반
황반	황원덕	곤반
장반	장대안	곤반
왕반	왕기원	곤반
정반	정겸덕	곤반
대홍반	홍충실	곤반
덕음반(내강반)	강광달 → 홍잠원	곤반
춘대반(외강반)	강광달 → 나영태	화부회

24) 『양주화방록』, 107쪽.

면 강광달은 결코 많은 돈과 심혈을 기울여 춘대반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²⁶⁾ 더욱이 음악에 정통했던 건륭제가 “남순 때에는 반드시 신극을 공연해야 한다”²⁷⁾고 요구했다고 하니, 이에 강춘은 아마도 화부 공연에 많은 부분을 집중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춘대반의 예술 수준은 더욱 발전하여 당시 양주의 대표적인 화부극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경극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4대 휘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당시의 양주는 곤강과 화부가 모두 발전하고 성행했다. 곤강과 난탄은 내강반과 외강반으로 불리기도 하여, 강광달의 곤반인 덕음반은 내강반으로 화부인 춘대반은 외강반으로 불렸다. 그러나 내강반이든 외강반이든 모두가 황제의 영접을 위해 염상들은 ‘8대내반’을 조직하였다.

물론 이 8대내반은 동일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²⁸⁾ 그들은 명의상 양회염장에 소속되어 있어 관부의 부름을 기다리는 일종의 상인 가반이다. 염상들은 각 극단을 꾸리기 위해 사제를 출현하여 당시의 최고 극단으로 만들었다. 『양주화방록』의 기록을 보면 염상들은 거금을 투자하여 가반을 조직하고 배역을 모두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며 소도구와 의상 등을 완비하였고 절묘한 연기력을 갖춘

25) 강춘(1721-1789)은 자가 영장(穎長)이고 호는 학정(鶴亭), 휘주 흡현(歙縣) 강촌(江村) 사람이다. 소금상호명(鹽務牌)이 광달(廣達)이라 강광달이라 불렸다.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염업에 종사하였고 후에 아버지의 서거로 그의 나이 20여세에 총상(總商)이 되어 근 50년간을 염업에 종사했다. 그는 총상으로써 건륭16년(1751)에 처음 남순하는 건륭제를 영접해 황제로부터 환심을 얻었고, 두 번째 남순에도 최선을 다해 염상으로써 받을 수 있는 최고 관직인 정삼품봉신원경직함(正三品奉宸苑卿職銜)을 제수 받았다. 원래 강춘은 희곡 애호가로 희곡에 대한 조예가 깊어 그의 집에서 공연을 자주 했다. 또한 그는 총상으로써 남순하는 황제를 맞이하기 위하여 ‘대회’를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곤곡극단인 덕음반과 화부(花部)극단인 춘대반을 조직하여 아부와 화부의 연극에 동시에 육성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배우들을 초빙하고 훈련하여 양주 희곡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참고, 『청대 휘상 江春의 희곡 활동 고찰』(『중국학논총』, 2013, 제 39집), 참조.

26) 於質彬, 『康乾二帝南巡與花部之鄉揚州—花部盛於揚州考』(『藝術百家』, 1991, 제2기), 49쪽 참조.

27) 청 무명씨, 『清代之竹斗木屑』“南巡雜記”條, 趙莎莎, 『戲曲史視野中的乾隆皇帝下江南』, 2쪽 재인용.

28) 내반이 동일한 시기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지만 염상들에 의해 곤곡극단이 형성된 것을 보면 당시 곤곡이 여전히 희곡의 주류임을 알 수 있다. 明光, 『揚州戲劇文化史論』(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338-368쪽 참고.

배우들을 초빙하여 황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회를 공연했다.²⁹⁾ 이는 양주 희곡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2) 유양광덕태평반(維揚廣德太平班)

위의 8대내반 외에도 양주에는 다른 염상들이 조직한 극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극단이 바로 장광덕(張光德)의 태평반이다.³⁰⁾ 건륭제의 제2차 남순 때 양회염무 관아에서는 유양광덕태평반(維揚廣德太平班)을 불러 공연했는데, 그 규모가 방대하고 극단의 배역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18개의 곤곡 극본으로 영접을 준비했다. 극단의 배역에는 교습(教習) 7인, 말 5인, 노생 7인, 소생 7인, 외 4인, 노단 5인, 정단 5인, 소단 5인, 첩단 1인, 정 5인, 부 4인, 축 4인, 고관 4인, 적자 5인, 하수 4인, 현자 4인과 소라 4인 모두 80인으로 이두의 『양주화방록』에 기록된 '강호12배역'과 서로 일치한다.³¹⁾ 이는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건륭시대 곤반 구성의 가장 완정하고 정확한 자료이다. 18본 곤곡 작품은 「성취(星聚)», 「환영(歡迎)», 「방수(訪壽)», 「청랑(請郎)», 「화촉(花燭)», 「홀원(笏園)», 「구정(九鼎)», 「헌서(獻瑞)», 「퇴화(堆花)», 「경연(瓊宴)», 「오복(五福)», 「선집(仙集)», 「포서(布瑞)», 「권의(勸衣)», 「구여(九如)», 「구송(衢頌)», 「영복(迎

2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양주화방록』의 중국희곡사료적 가치 탐색(『중어중문학』, 제47집)과 「청대 휘주상인과 양주의 희곡예술」(『중국문화연구』, 제17집)을 참고하기 바란다.

30) 태평반이 어떤 극단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吳新雷는 안휘 광덕 일대에서 공연하던 직업곤반이라고 하고 鄭志良은 염상가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鄭志良의 견해를 따른다. 鄭志良, 「論乾隆時期揚州鹽商與崑曲的發展」(『北京大學學報』, 제40권), 102쪽 참조.

31) 이원은 부말로서 공연을 시작하고 극단을 이끈다. 부말 이하의 노생, 정생, 노외, 대면, 이면, 삼면의 7인을 남자배역(男脚色)이라 한다. 노단, 정단, 소단, 첩단의 4인을 여자배역(女脚色)이라 한다. 우스개 떠는 1인을 잡이라 한다. 이들이 바로 '강호12배역'이며, 원대 원본의 구체제이다. (梨園以副末開場, 爲領班. 副末以下老生、正生、老外、大面、二面、三面七人, 謂之男脚色. 老旦、正旦、小旦、貼旦四人, 謂之女脚色. 打諢一人, 謂之雜. 此江湖十二脚色, 元院本舊制也) 이처럼 '강호12배역'은 남희의 경우보다 전문영역이 더욱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희 중에 '외'는 청대에 와서 노년의 남자인 '노외'와 노년의 부녀자인 '노단'으로 세분화 되었고, '정' 배역 역시 극중 인물의 다양한 유형의 변화에 따라 '대면', '이면', '삼면'으로 분화 되었다. 강호12배역이란 용어는 『양주화방록』에 처음 등장하며 중국희곡사, 특히 곤곡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揚州畫舫錄』, 122쪽.

福)», 「장정(長亭)」 등이다. 주육덕(周育德)의 고찰에 의하면 이 작품들은 건륭 22년(1757)에 시행된 제2차 남순에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공연한 각본이다.³²⁾ 공연 내용을 보면 '신선과 부처, 빼어난 남녀에 대한 이야기'에는 수많은 신선들이 등장하고, '태평성대의 풍경'을 묘사한 연극에는 일반 사람이 등장한다. 이로 당시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공연했던 극의 내용은 대부분이 태평성대를 노래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집수반(集秀班)

집수반은 원래 이름은 집성반(集成班)이고, 건륭제의 제 6차 남순을 영접하고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임시극단이었다. 당시 소주, 양주, 항주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들을 선발하여 극단을 구성하고 건륭제에게 희곡을 올려 황제에게 찬사를 받아 유명해진 극단이다. 집수반이 구성된 연유와 과정에 대해서 공자진(龔自珍)의 『서금령(書金伶)』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건륭 갑신년에 건륭제가 육순이 되자 강남 상의(尙衣)와 차사(齎使)는 경쟁적으로 유명한 극단을 초빙하였다. 극단의 어떤 배역은 연기가 뛰어나나 다른 배역은 영 신통치 않았다. 또 어떤 어떤 배역들은 재주가 있으나 피리, 북, 비파 연주자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혹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용모가 없어 적당치 않았다. 황제의 어가가 막 다다르려 하니 몹시 난처해졌고 손님이 김덕휘(金德輝)³³⁾를 추천했다. 덕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인이 거금으로 각 극단을 불러 전체적으로 그 극단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소주, 항주, 양주 세 지역의 수 백 극단을 합쳐 한 극단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차사가 기뻐하며 김덕휘에게 맡겨 그가 대신 처리하게 했다. 그 목록에는 비파 연주는 소주(蘇州)의 누구, 피리 연주는 곤산(崑山)의 누구, 북 연주는 강도(江都)의 누구로 정했고, 각각의 배역은 항주(杭州)의 누구, 강도의 누구로 말했다. 덕휘 자신은 정단배역으로 오현(吳縣)의 누구라고 서명하여 공연 극단이 결성되었다. 음악에 맞추어 공연

32) 周育德, 「揚州太平班和迎鑾戲」, 『戲曲研究』 제9집 참조.

33) 金德輝는 강광달의 곤곡극단인 덕음반의 간관급 배우로 소극 연기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모란정(牡丹亭)·심몽(尋夢)』과 『요투경(療妬羹)·제목(題曲)』을 연기할 때 마치 본 누에가 실을 토하고 죽어가는 듯이 혼신의 힘을 다했고, 특히 「심몽」이 빼어나 그를 「김파가락(金派唱口)」라 칭해 불렀다. 『揚州畫舫錄』, 128쪽 참조.

을 하니 건륭제가 아주 좋아했다. 내부에서 따뜻한 성지가 전달되어 등불 아래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내려졌고, 옥기와 궁냥이 끊이지 않았다. 또 극단의 이름을 하문하니 차차가 “강남에는 원래 이 극단이 없으며,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라고 상주했다. 어가는 이미 떠났지만 그 극단을 해체할 수 없었고, 그 극단의 총애하여 ‘집성반’이라 불렀고, 후에 ‘집수반’이라 고쳐 불렀다(乾隆甲辰(四十九年 1784). 上六旬, 江南尚衣, 齷使爭聘名班. 班之某色人, 藝絕矣, 而某色人頗絀: 或某某色皆藝矣, 而笛師、鼓員、琵琶員不具: 或皆具而有聲無容, 不合. 駕且至, 頗窘, 客薦金德輝. 德輝上策曰: “小人請以重金, 號召各部, 而總進退其所短長, 合蘇、杭、揚三郡數百部, 必得一部矣.” 齷使喜, 以屬金, 金部署定, 其目錄: 琵琶員曰蘇州某, 笛師曰崑山某, 鼓員曰江都某, 各色曰杭州某、曰江都某, 而德輝自署則曰正旦色吳縣某, 隊既成: 比樂作, 天顏大喜. 內府傳溫旨, 燈火中下珍饈醞、玉器、宮囊不絕. 又有旨詢班名, 齷使奏: 江南本無此班, 此集腋成裘也. 駕既行, 部不得析, 而寵其名曰“集成班”, 後更曰“集秀班”.³⁴⁾

위 내용을 통해 집수반이 어떻게 구성 되었는지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건륭49년인 1784년에 강남직조와 양회염시는 건륭제의 6차 남순을 대비하고 또 그의 육순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명배우 김덕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주, 양주, 항주의 수백 개의 극단 중에 가장 뛰어난고 우수한 배우와 악사들을 선발하여 황제를 영접하기 위한 임시극단을 조직하여 공연하였으니 그날의 공연은 당시 강남 최고의 희곡공연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황제의 남순을 영접하기 위해 만든 극단과 그 극단의 배우, 연기 수준 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가히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주 희곡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었다.

2) 작품 창작

건륭제의 영접을 위해 전통적인 절자회 공연 외에도 당시 양회염정들은 전문적으로 대회를 창작하는 작가들을 초빙하였는데 여악(厲鶚)과 심기봉(沈起鳳)이 대표적이다.

34) 龔自珍, 『書金伶』, 『龔自珍全集』(上海人民出版社, 1975년), 181쪽.

(1) 여악(厲鶚)

여악(厲鶚)³⁵⁾은 절강(浙江) 전당(錢塘) 사람으로 자는 태홍(太鴻) 또는 웅비(雄飛)이고, 호는 번사(樊榭) 또는 남호화은(南湖花隱), 서계어자(西溪漁者)다. 집안이 가난했지만 성품이 고결하여 세상과 구차하게 합류하지 않았다. 강희(康熙) 59년(1720) 거인(舉人)이 되었고, 후에 예부발공(禮部撥貢)에 응시했지만 급제하지 못했고 박학홍사(博學鴻詞)에 응시했지만 또 낙방하여 관직과는 인연이 없었다. 여악의 후반생은 당시 양주 염상인 마왈관(馬曰瑄)과 그의 동생 마왈로(馬曰璐)의 집에 의탁하여 30여년을 기거했다.³⁶⁾ 이때 건륭제의 제1차 남순을 맞이하기 위해 양주 지방관은 그를 초빙하여 승응신곡(承應新曲)을 의뢰했고, 이에 그는 「백령효서(百靈效瑞)」를 창작했다. 이때 그의 나이 60세였다.

건륭제는 제1차 남순 때인 건륭 16년 2월 14일에 양주에 도착하여 고민사 행궁에서 머물렀다. 당시 양주 염상 중 수상(首商)인 강춘은 이 임무를 맡아 염상들과 함께 지극히 화려한 희곡을 공연해 올렸다. 이때 공연된 작품이 바로 여악이 창작한 승응신곡 「백령효서」이다. 이 곡은 원잡극의 형식으로 지어져 모두가 4막으로 구성되었고, 건륭제가 남순하여 항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해관음보살이 수많은 신선들을 데리고 항주에 가서 황제를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신선, 해족(海族, 바다 속에 사는 동물들의 족속), 화신들이 서호에서 각기神通술을 선보이고 다채로운 제주를 뽐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잔을 들어 황제의 공덕을 칭송했다. 이 곡은 전형적인 희곡이라기보다는 화려한 장면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무로 기쁨의 효과를 극대화한 일종의 대형 가무희라 할 수 있다. 이로 당시 극단의 규모와 실력을 가히 알 수 있다. 여악이 창작한 이런 신선이 등장하는 상서로운 곡은 당시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후에 「백령효서」는 동군(同郡)의 오성(吳

35) 厲鶚(1692-1752)은 시와 사에 모두 능했고 대부분 한가한 정취를 표현했는데 때때로 울분이나 쓸쓸한 감정, 또는 자신의 고결한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周邦彥, 姜夔와 함께 浙西詞派의 중요한 작가다. 저서에 『樊榭山房集』 20권과 『宋詩紀事』 100권, 『南宋院畫錄』 8권, 『遼史拾遺』, 『東城雜記』, 『樊榭山房集』 등이 있다.

36) 馬曰瑄(1688-1755)은 자가 추옥이고 호는 왜곡이며 기문사람으로 염상으로 치부하여 양주에 와서 살았다. 그는 청대 양주 시작과 장서를 취미로 갖고 있었고, 문인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했다. 아우인 馬曰璐와 함께 揚州二馬로 불렸던 그의 저작으로 『沙河逸老集』이 있다.

城)³⁷⁾이 편찬한 승응회 「군선축수(郡仙祝壽)와 함께 『영란신곡이중(迎鑾新曲二種)』으로 불리며 현재 『고본희곡총간(古本戲曲叢刊)』제6집에 수록되어 있다.

(2) 심기봉(沈起鳳)

심기봉은 강소(江蘇) 오현(吳縣) 사람으로 자는 동위(桐威)이고, 호는 빈어(贛漁) 또는 홍심사객(紅心詞客)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관직에 있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 역시 건륭 33년(1768)에 거인(舉人)이 되지만 후에 관운이 좋지 않아 그만 두고 사곡(詞曲) 창작에 전념하여 명성을 떨쳐 “이원자제들이 찾아와 구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³⁸⁾ 그의 현존하는 대표적인 작품에는 『심빈어사종곡(沈贛漁四種曲)』이 있다.

이런 그의 명성으로 건륭제의 제5차와 제6차 남순을 맞이하기 위해 양주 염무는 심기봉(沈起鳳)을 초빙하여 황제를 영접하는 극을 창작하게 했다. 이로 알 수 있듯이 그가 창작한 극이 상당히 관촬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가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 창작을 했다는 기록만이 전해지고³⁹⁾, 편찬한 대회는 지금 전해지고 않는다. 아마도 그 내용이 주로 ‘신선과 부처(仙佛), 뺨어난 남녀 이야기(麟鳳), 태평성대의 풍경(太平擊壤)’ 등이었기에 황제가 떠나고 나면 공연이 아주 적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악이 창작한 승응신곡이든 심기봉이 창작한 영접대회는 모든 작품들은 장면이 크고 화려하며 등장인물의 수가 매우 많은 대형 가무 공연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당시 극단의 규모와 배우의 연기수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37) 吳城, 자는 敦復, 호는 甌亭이고 생졸 년대는 미상이다.

38) 石韞玉, 『紅心詞客傳奇·序』, 蔡毅編著, 『中國古典戲曲序跋匯編』 三(齊魯書社, 1989), 1942쪽.

39) 石韞玉, 『紅心詞客傳奇·序』, 蔡毅編著, 『中國古典戲曲序跋匯編』 三(齊魯書社, 1989), 1942쪽.

4.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남지역의 치수문제와 통치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건륭제는 여섯 차례 남방을 순시했고, 이 과정에서 꼭 들러야 하는 양주는 황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방면으로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희곡을 애호하는 건륭제를 위해 양회염무에 소속되어 있는 거부인 양주염상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극단을 조직하고 배우들을 초빙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문인들을 초빙하여 극본을 창작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희곡의 주류였던 곤곡은 양주에서 더욱 발전하여 소주를 능가하는 '곤곡의 제2고향으로' 거듭 발전했다.⁴⁰⁾ 이뿐 아니라 건륭제의 특별한 애호를 받은 화부는 이를 계기로 하여 양주에서 체계를 갖추고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극단이 강춘이 조직한 춘대반이다. 결국 화부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춘대반은 경극이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4대 휘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런 양주의 곤극과 화부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건륭시기 양주는 남방 희곡 활동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북경과 함께 희곡계의 양대산맥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기호(嗜好)는 그 시대의 의식을 결정지었고, 그의 행동은 그 시대의 동력(動力)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건륭제의 기호였던 희곡 애호는 당시 화부라고 하는 새로운 큰 물줄기를 형성하게 했고, 그의 여섯 차례에 걸친 남방 순행은 양주와 북경의 문화를 교류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는 그 시대를 주름 잡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그 시대의 스타일을 규정했던 것이다.

〈參考文獻〉

高晉輯, 『南巡盛典』, 臺北, 文海出版社, 1971。
 清代官修, 『南巡盛典稿存』, 臺北, 文海出版社, 출판년도 미상。

40) 王振忠, 「明清揚州鹽商社區文化及其影響」 참조.

- 許指嚴, 『南巡秘記』,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85.
- 李斗(著), 汪北平 涂雨公 點校, 『揚州畫舫錄』, 中華書局, 2001.
- 張次溪, 『清代燕都梨園史料』, 中國戲劇出版社, 1991.
- 王振忠, 『明清徽商與淮揚社會變遷』, 北京, 三聯書店, 1996.
- 陸萼庭, 『清代戲曲家叢考』, 上海: 學林出版社, 1995.
- 張發穎, 『中國戲班史』, 學苑出版社, 2003.
- 張發穎, 『中國家樂戲班』, 學苑出版社, 2002.
- 胡忌, 『崑劇發展史』, 中國戲劇出版社, 1985.
- 陳芳, 『清代戲曲研究五題』, 里仁, 2002.
- 丘慧瑩, 『乾隆時期戲曲活動研究』, 文津出版社, 2000.
- 明光, 『揚州戲劇文化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3.
- 趙莎莎, 『戲曲史視野中的乾隆皇帝下江南』, 廈門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 마크 C. 엘리엇 지음, 양희웅 옮김, 『건륭제』, 천지인, 2011.
- 조용현, 『대운하와 중국상인』, 민음사, 2011.
- 김형중 외, 『중국의 청사편찬과 청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오금성, 『중국근세사회경제사연구』, 일조각, 1986.
- 임계순, 『청사—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001.
- 로이드 E. 이스트만, 이승희 역,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1997.
- 정철웅, 『역사와 환경—중국 명청시대의 경우』, 책세상, 2002.
- 김종박, 「명청시기 양주도시의 발달과 염상문화의 형성」, 『史叢』67.
- 조영현, 「명대 염운법의 변화와 양주 염상」, 『동양사학연구』, 제70집.

〈中文提要〉

乾隆一朝, 社会安定, 经济繁荣, 国库充实, 人口大增, 边疆及少数民族关系巩固稳定。政治、经济、军事、文化均达到了盛世状态。在繁荣昌盛中, 乾隆一生南巡共计六度, 时间分别为乾隆十六年(1751)、乾隆二十二年(1757)、乾隆二十七年(1762)、乾隆三十年(1765)、乾隆四十五年(1780)、乾隆四十九年(1784)。在南巡过程之中, 运河流经扬州, 扬州成为乾隆南巡时必经之地。因此扬州的官绅士族、富商大贾为了恭迎圣驾, 可谓是竭尽所能。特别两淮盐商为了迎接圣驾, 组建迎銮戏班, 以便随时供应演出, 著名的八大内办便是在这样的背景下组建而成的。

又两淮盐商以征聘的方式招致盛名远扬的艺人,各式名流文人大量编撰新剧,戏曲演员不断提升表演水平和声腔技艺,促进了扬州戏曲表演技艺的提高,带动了扬州剧团的全面发展。

關鍵詞: 乾隆, 南巡, 扬州, 两淮盐商, 扬州戏曲

이 논문은 2013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6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